

소비자



기름값이 오른다 하이브리드로 달린다

‘하이브리드가 뜬다’

이달 초 동반 출시된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및 기아자동차 K5 하이브리드가 출시 초반부터 성적이 좋다. 장기간 지속된 고유가 탓에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원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K5 하이브리드는 출시 이후 하루 평균 100대 이상이 예약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당초 월간 판매목표였던 1000대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하지만 K5 인기가 계속되면서 같은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생산되는 K5의 국내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K5 하이브리드 역시 쉽게 물량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계약된 K5가 아직도 1만8000대가 밀려있어 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K5 하이브리드는 K5 공급량의 10% 정도 밖에 배정받지 못한 실정이다.

화성공장에서 생산되는 K5 물량은 월 1만 4000~1만5000대로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7000~8000대 정도가 국내에 공급된다. 이 경우 10%인 700~800대, 많아야 1000대 정도의 K5 하이브리드를 공급할 수 있는 셈.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K5 하이브리드보다 계약대수가 다소 적은 100대 안쪽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월 판매목표인 1500대 정도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현대·기아차에서 처음으로 내놨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각각 1만210대, 4364대의 저조한 판매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같은 순조로운 출발은 의미가 크다.

특히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특허를 피해 개발한 시스템을 장착, 현대차그룹이 자랑할만한 ‘진정형’ 하이브리드차다. 두 차량 모두 누우 2.0 하이브리드 엔진과 30kW급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전기모터를 달아 같은 동력성능을 내고 연비도 ℓ 당 21km로 똑같다. 디자인과 가격면이 차이가 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최대 130만원을 감면받아 프리미어모델 2975만원, 로열 모델 3295만원이다.

K5하이브리드는 럭셔리모델 2925만원, 프레스티지 3095만원, 노블레스 3195만원으로 쏘나타 하이브리드보다 50만~100만원 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동급의 수입차에 비하면 최대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인기 이유를 분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5·쏘나타, 월 판매목표 각각 1000·1500대 ‘이상’

수입차보다 저렴하고 연비 ℓ당 21km로 ‘알뜰 주행’

성년의 날 선물 뭐가 좋을까

롯데백, 정장·향수 등 적합... 화이트골드 선호도 높아

“성년의 날, 정성어린 선물 준비하세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만 20세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기념일로, 최근에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거듭나는 젊은이들이 가족과 친지, 연인 등 주변 지인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날로 거듭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선물은 깔끔한 정장이나 향수를 이용해 자신만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 지갑과 벨트, 명함집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잡화류도 성년의 날 선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향수는 너무 자극적인 느낌을 주는 것보다 깨끗한 느낌에 어울리는 향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또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보다 색조 화장품인 아이섀도우나 마스크라, 립글로즈가 인기가.

부모나 연인, 친구들이 많이 하는 목걸이



나 반지 등의 액세서리의 경우, 골드 보다 화이트 골드 제품이 선호도가 높고, 큐빅이 화려하게 박힌 헤어핀이나 캐주얼한 시계도 무난하다.

정장은 너무 어스러운 것을 고르기도 어려운 캐주얼 스타일에 딱딱한 느낌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여성에게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나 카디건을, 남성의 경우 재킷이나 남방을 선물하는 것이 어울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브랜드 특별기획전 지금이 기회

이마트, 18일까지 식품·가전·란제리 등 가격 파괴

이마트가 오는 18일까지 ‘새탄생 기념 대축제 2탄’을 열고 식품 및 가전, 란제리 등 다양한 장르의 대표 상품을 특별 기획가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쿠쿠·데팔·페리에 등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품이 기획상품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

인기 압력밥솥 브랜드 쿠쿠의 10인용 전기 압력 밥솥이 10만8000원에 판매되고, 프랑스 탄산수인 페리에(300ml, 4개)는 평소 대비 25% 가장 저렴한 4480원에 판매된다. 프랑스에서 생산한 데팔 스틱 다리미도 특별가 3만9900원에 선보인다. 인기 탈취제 브랜드인 페브리즈를 일본 등 아시아국가 인기 향인 다우니 향으로 기획해 2700원(320ml)과 3300원(370ml)에 제공한다.

또 참외와 생담, 오징어 등 시즌 인기 신선식품도 ‘새출발 기념 가격’로 판매한다. 지난 4월 7980원(1.5kg)에 판매해 인기를 얻었던 곶감도 성수 참외를 새출발 5980원에 양코로 판매하며 국내산 영계(500g, 2마리)와 채워시로 잡아 바로 열린 동해 오징



어(대)도 각각 4980원 가격대로 진열한다. 이외에 비비안과 비너스, 트라이엄프 등 65개 언더웨어·이지웨어 브랜드가 총출동하는 ‘이마트 새탄생 축하 언더웨어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비비안과 비너스 트라이엄프 등 유명 브랜드의 기능성 브라와 팬티를 각각 1만800원과 4800원 균일가로 판매하며 성인과 아동 내의도 1500원, 2500원, 3500원에 선보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장터 소식

커피란제리 특가전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15일까지 구두 및 핸드백 20% 세일을 진행한다. 또 실버 액세서리 특가는 메트로시티와 로라프렌스, 모자의 특별전을 연다. 3·4층 행사장에서는 울티모와 모그의 이월 상품전이 열리고, 6층 행사장에서는 게스진 및 켈스데이아일랜드 특집전도 마련된다.

‘성년의 날’을 맞아 7층에서는 본·지이크 등 캐리더 정장 특집전이 15일까지 열리며 커피란제리 특가전으로 켈빈클라린 브라 8만8000원, 여성팬티 3만8000원, 남성팬티 5만원 등에 판매된다. 30·5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10% 이상 할인과 함께 CJ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준비됐다. 또 게스 브라는 4만5000원, 팬티는 3만원에 판매된다.

‘스승의 날’ 특별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스승의 날’을 기념, 다양한 선물상품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남성의류 및 잡화 매장에서는 15일까지 ‘스승의 날 감사의 선물 상품 제안전’이 열린다. 선물로 인기가 높은 레노마 정장세트는 44만6000원, 남방은 10만8000원, 넥타이는 5만3000원, 벨트는 6만8000원, 카운테스마라 넥타이는 5만5000원, 예작 아이스셔츠는 10만원에 판매된다. 또 스칼로브스키 라벤더 목걸이는 15만 5000원, 금강 여성화는 17만8000원, 닥스여성 점퍼는 42만5000원이다.

반해 과즙 탄산음료는 43.6% 성장하는 등 상승세”라고 출시 이유를 밝혔다.

자연치즈 함량 최고 ‘웰작’

서울유유가 현재 판매되는 가공 치즈 가운데 자연 치즈 함량 비율이 가장 높은 ‘웰작’(Well) 치즈를 11일 내놨다.

이 제품은 자연치즈 함유 비율이 83%로 현재 제품에 표시된 기준으로 국내 치즈 가운데 가장 높아 치즈 본래의 진한 풍미를 맛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제품의 자연치즈 함유 비율은 70% 안팎이다.

요리용 흑초 4종

샘표가 현미를 자연발효시켜 만든 요리용 흑초 4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통알콩 생현미를 세 단계로 오랫동안 발효시킨 흑초를 써 상큼하면서도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살려주고, 아미노산·비타민·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바로 만드는 피클용 흑초’(500g), ‘바로 만드는 간장초절임용 흑초’(460g), ‘현미를 자연발효해 더욱 건강한 요리흑초’(420ml), ‘현미를 자연발효해 더욱 건강한 요리흑초사과’(420ml) 등 네 종류가 있다. 가격은 한 병에 5300원이다.

디오스 식기세척기

LG전자가 2011년형 디오스 식기세척기 모델 3종을 출시했다. 이 신제품은 80℃ 고온 세척으로 식기를 살균하고, 자외선램프를 통한 2차 살균으로 세균을 99.9%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전면 디자인에는 김성운, 멘디니 등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적용했다. 버튼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 식기를 넣고 빼기도 편리하다. 1회 물 소비량은 7.7ℓ로 손 설거지의 8분의1 수준이고, 소음도 일반 도서관과 비슷한 45.5데시벨 수준이다. 가격 65~76만원.

‘오유 프루트 스파클링’

한국야쿠르트가 12일 과즙탄산음료 ‘오유 프루트 스파클링’(O’ Yu Fruit Sparkling)을 출시했다.



사과맛 340ml 캔 제품이며 사과과즙 10%를 함유했고 보존료와 합성색소를 넣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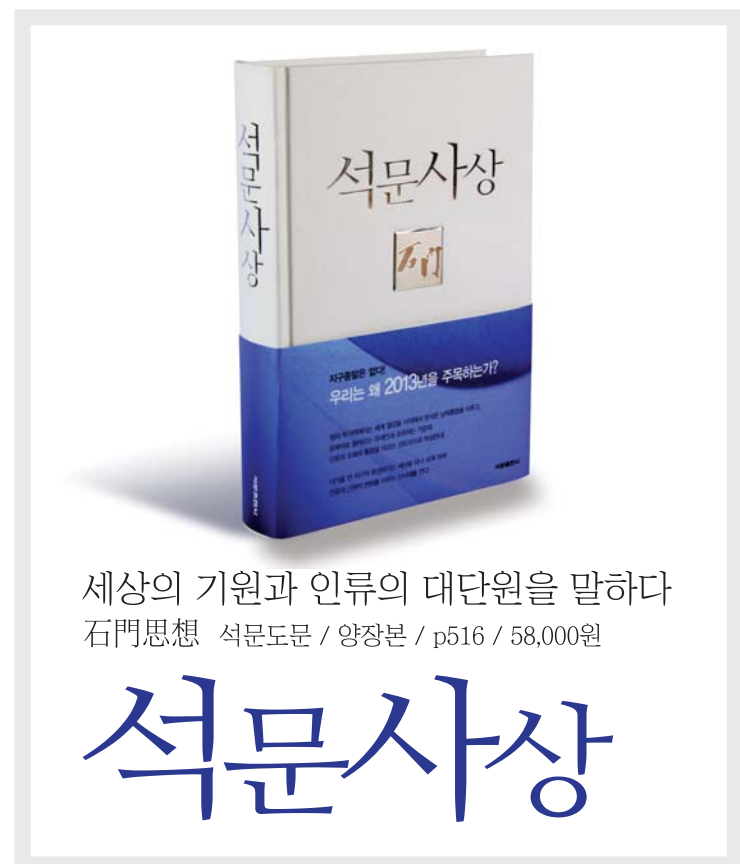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탄산음료 시장은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착향 탄산음료는 최근 1년 새 7% 감소한 데

기상이변, 지각변동, 핵 위기, 그러나 지구종말은 없다!

전 지구적 혼란의 궁극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인간의 도전과 노력, 그 경이로운 여정의 대단원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지진으로 인한 일본인의 만주 이주 가능성, 북한 수뇌부의 심리를 통해 유추한 통일 시나리오, 핵분열을 넘어 다가온 핵융합 에너지 시대, 북극항로 개설로 시작될 한반도 심자교류 시대, 빛의 상상을 통한 인류의식의 도약, 그로 인해 이루어질 인류 문명의 비약적 발전 등, 절제되고도 현대적인 미래예측으로 미래의 궁극적 모습을 묘사한다.

예언을 예측하는 이유는 ‘확정된 미래’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미래’를 바꾸는 데 있다. 나와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최상의 선택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대단원을 말하다
石門思想 석문사상 / 양장본 / p516 / 58,000원

석문사상

- 고전과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책이다. 전반부는 동양사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현대적인 필치로 국제정세의 흐름을 예견한 중·후반부는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리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프로 바둑 기사(9단) 백성호』
- 세상을 움직이는 비가시적 흐름이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그러나 이 책의 응용 편이 국제 정세의 숨겨진 이면을 너무나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일대 법대 JD, 변호사(美) 이성진』
- 인류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미래는 공학 시스템이 가야 할 미래와 다르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미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기에 흥미롭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정완균』
- 동서양을 뛰어넘는 범지구적, 범우주적 관점의 세계관이 하나의 정합적 인과관계 아래 설명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방송작가 유영주』

교보,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 등 전국 서점(인터넷 포함)에서 절찬 판매 중!